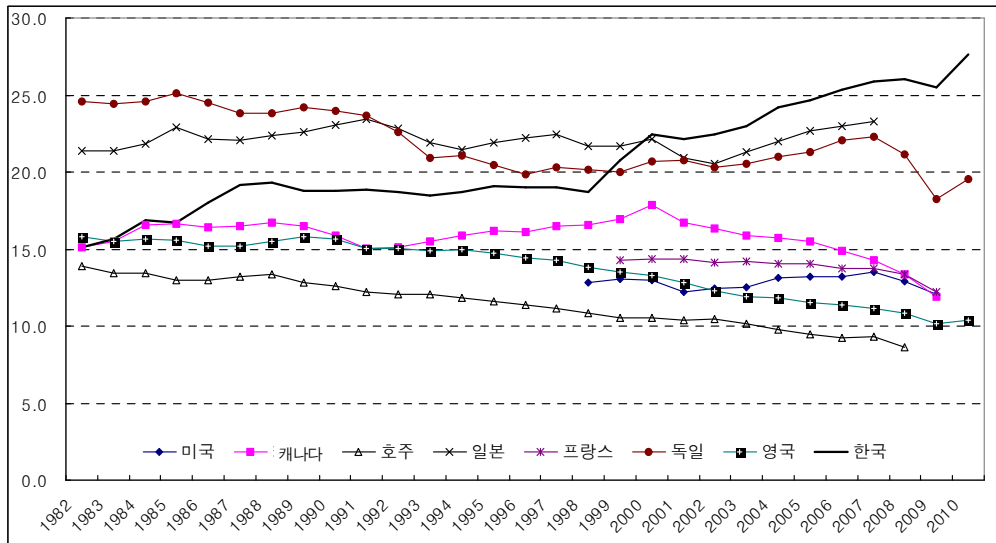


제조업 취업자 비중 국제비교

-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실질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2000년 이후 독일을 크게 추월함.
 - 우리나라의 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000년 이전에는 20%를 하회하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현재 전체 GDP의 27.6%를 차지함.
 -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하향추세를 지속하다가 2000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섬.
 - 한편,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비중은 완만한 감소를 지속하며 전체 GDP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09년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12%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 추이의 국제비교

(단위 : %)



주: 1) 개별 국가의 실질 GDP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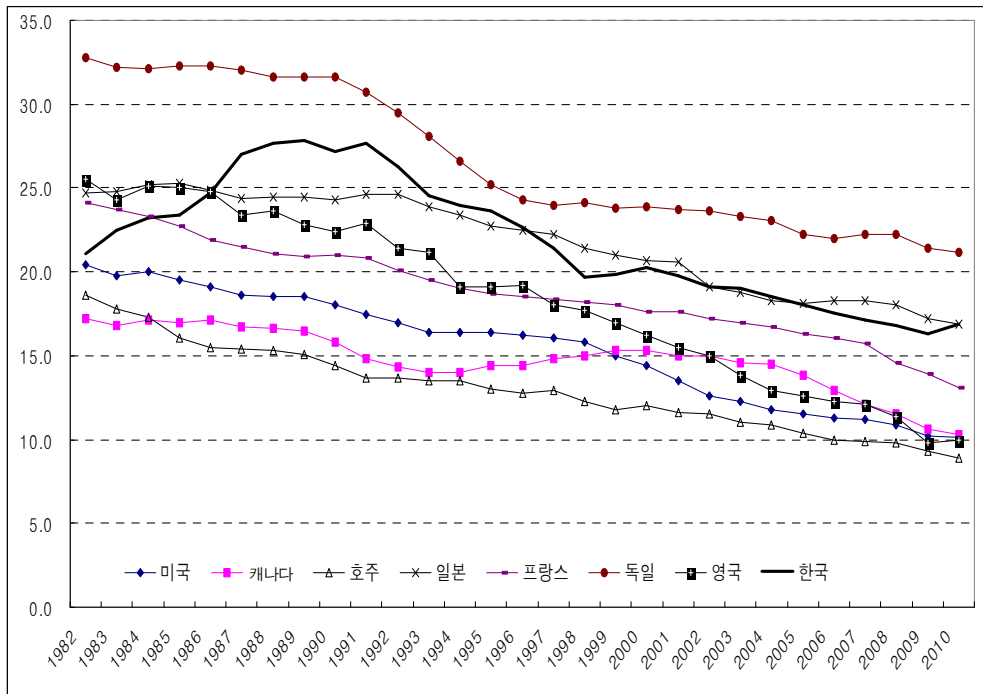
2) 미국은 1998~2009년, 캐나다는 1982~2009년, 호주는 1982~2008년, 일본은 1982~2007년, 프랑스는 2000~2009년까지이며, 독일, 영국, 한국은 1982~2010년까지의 자료임.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 한편,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임.
 - 독일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내에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임.
 - 독일은 여전히 OECD국가 내에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해 2010년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함.
 - 영국은 1990년대 이전에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10%의 낮은 수준을 보임.

[그림 2] 제조업 취업자 비중 추이 국제비교


(단위 : %)



주 : 1) 15세 이상 인구 기준.

2) 미국은 1986년, 1990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 호주는 1986년, 프랑스는 1982년, 2008년, 독일은 1984년, 1991년, 1999년, 2005년, 영국은 1984년, 1997년, 한국은 1993년, 2000년, 2004년 시계열 단절됨.

자료 : BLS(2011),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1970~2010).
통계청, <http://www.kosis.kr/>.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2000~2008년 기간 동안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 추이와는 반대로 GDP의 제조업 비중 추이의 증가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캐나다, 호주, 프랑스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과 취업자 비중 추이가 유사하게 감소하고 있음.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